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현 명 선¹⁾ · 김 경 희²⁾ · 김 선 아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특성들이 아동의 형태에서 성인의 형태로 변화하는 전환시기이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는 제 2의 신체발육 급등기에 따른 신체적 발달 및 성적 발달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됨에 따라 신체에 대한 만족도 및 신체상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 청소년기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나 심리적인 문제들이 부적절하게 표출되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Cho & Nam, 1994). Shapiro, Siegel, Scovill과 Hays(1998)는 청소년기가 새로운 역할의 시도에 몰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발생에 취약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그 밖의 다른 학자들도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 및 물질 남용 행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바 있다(Buchanan, Eccles & Becker, 1992; Hinshaw, 1992).

그 동안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특히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어왔다. Buchanan 등(1992)은 청소년 초기에 비행행위 및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나이를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Udry와 Talbert(1988)는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여자 청소년인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도록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 패턴이 남자 청소년들과는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Hinshaw(1992)는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와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낮은 학업 성취는 좌절감을 가져와 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문제행동의 발생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나이와 성별 및 학업성취도와 같은 일반적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정서 및 심리적 발달이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불안이나 좌절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로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Shin, 1995). Teri (198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7%의 학생이 중간 정도의 우울을 보였으며, 5%의 학생이 심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Worchel, Nolan과 Willson(1987)은 우울한 여자 청소년에게는 내향형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우울한 남자 청소년에게는 외향형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행동 간에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상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었는데, Chung(1990)은 자신과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신체상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신체상은 행동의 동기가 되는데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청소년인 경우 문제

주요어 : 청소년, 문제행동, 신체상, 우울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조교수,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투고일: 2003년 7월 21일 심사완료일: 2004년 4월 8일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Nottlemann 등(1987)도 신체상이 청소년 시기의 발달과업인 자기주체성 확립과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문제행동의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Kim, Kim과 Lee(1997)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경험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며, Hyun, Nam과 Kong(2001)이 경기도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달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Ahn과 Yi(2002)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아동학대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다. 이상과 같이 아직까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분석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점점 흉악화, 연소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볼 때(Kim, 1990),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파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변인인 우울 및 신체상과 일반적 특성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정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방향제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신체상, 우울, 일반적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신체상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신체상, 우울 및 일반적 특성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중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중학생들만은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중기나 후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는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용어의 정의

• 문제행동

문제행동이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한다(Ahn, 1987). 본 연구에서는 Hong(1986)이 재개발한 아동 문제행동 목록 중 Hyun(2000)이 중학교 대상자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며, 3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 신체상

신체상이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외모나 기능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를 말한다(Norris, 1970). 본 연구에서는 Secord와 Jourard(1953)가 개발한 신체만족도 도구를 Chung(1984)이 재개발한 것을 사용하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 우울

우울이란 “무희망감, 불안정감,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1). 본 연구에서는 Beck(1978)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와 Song(199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체상, 우울 및 일반적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파악하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의 중학교 학생을 표적모집단, 서울 지역에 있는 중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2001년 5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한 남자중학교 1개에서 2, 3학년(202명), 여자 중학교 1개에서 1, 2, 3학년 (209명), 남녀 공학 중학교 2개에서 1, 2학년 학생(196명)을 임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진이 각 학교 주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25분이었으며 총 60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무응답이 많은 11명의 학생을 제외한 596명이 총 연구 대상자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학교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대상자가 되기를 수락한 학생으로 하였다. 또한 정신과적인 문제나 발달장애 및 신체적인 질병이 없는 자로 국한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배제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제외된 학생은 없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문항, 문제행동 44문항, 신체상에 관한 39문항과 우울에 관한 내용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제행동

Hong(1986)이 개발한 문제행동 목록에서 Hyun(2000)이 학생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목록에 적절한 내용인 비행성 행동, 사회적 위축행동, 정신신체화에 해당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α .72였으나, Hyun(2000)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했을 때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이 도구는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는 0점에서 88점이며 외향형 문제행동은 0점에서 42점, 내향형 문제행동은 0점에서 46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성 행동은 외향형 문제행동, 사회적 위축 행동 및 정신신체화 행동을 내향형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 신체상

Secord와 Jourard(1953)가 개발한 신체만족도 도구를 Chung(1984)이 수정하여 재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는 부정문항을 역으로 환산하여 최저 39점에서 최고 195점이다.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우울

Beck(1978)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와 Song(1991)이 번역한 도구에서 Hyun(2000)이 성인의 우울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신체화 항목과 성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는 0점에서 57점까지이며, 19문항,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 α .86이었으며, Hyun(2000)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했을 때와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문제행동, 신체상, 우울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신체상 및 우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일반적 특성간의 관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이 49.5%(295명), 여학생이 50.5%(301명)이었다. 학교분포를 보면 남자중학교 학생이 33.1%(197명), 여자중학교 학생은 34.7%(207명),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이 32.2%(192명)이었다. 학년 분포는 2학년이 42.6%(2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26.2%(156명), 3학년이 29.0%(173명)이었으며, 형제순위는 첫째가 53.2%(317명)로 가장 많고 둘째가 35.4%(211명), 셋째 및 넷째가 각각 5.0%(30명), 1.2%(7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가 52.7%(314명), 없음이 29.7%(177명)이었으며, 부모의 상태에서 양쪽 부모와 같이 사는 대상자가 91.9%(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편부모와 같이 사는 대상자가 7.0%(42명)이었다. 가정의 생활 형편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4.4%(384명)로 가장 많았으며 '여유있게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5.0%(149명)이었고 '가난한 편이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7%(58명)이었다. 학교성적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3.6%(379명)로 가장 많았고, '낮다'가 20.5%(122명), '높다'가 12.9%(77명)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신장은 전체 평균이 161.33cm±7.76이었으며 남학생은 164.91cm±8.41, 여학생은 158.20cm±5.49이었다. 체중은 전체 평균이 52.09kg±10.46이었고 남학생은 55.50kg±11.73, 여학생은 48.72kg±7.66이었다.

대상자의 문제행동, 신체상 및 우울 정도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신체상 및 우울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문제행동은 최소값 0점에서 최대값 54점의 범위와 평균값 15.06(±10.58)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문제행동은 14.19(±10.87) 여학생의 문제행동은 15.90(±10.25)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보면, 외향형 행동은 전체 평균은 6.12(±4.97), 남학생은 6.19(±4.97), 여학생은 6.04(±4.98)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내향형 행동은 전체 평균은 9.09(±7.19), 남학생은 8.12(±7.22), 여학생은 9.99(±7.06)로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신체상을 보면, 신체적 만족도의 가능한 범위는 52점에서 189점까지이었으며, 전체 평균값은 128.36(±22.31), 남학생은 134.21(±22.05), 여학생은 122.62(±21.0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범위가 0점에서 38점까지이었으며, 전체 평균값은 10.43(±6.90), 남학생은 8.92(±6.61), 여학생은 11.89(±6.87)로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제 변수들과의 관계

● 문제행동과 신체상 및 우울과의 관계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신체상 및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과 같다. 문제행동과 신체상 간에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r=-.310, p=.000$)를 나타내어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하부영역에 따라 보면 신체적 만족도와 외향형 문제행동($r=-.162, p=.000$), 내향형 문제행동($r=-.341, p=.000$)과 역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행동과 우울간에는 유의한 순 상관 관계($r=.674, p=.000$)를 나타내어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하부영역에 따라 보면 우울 정도와 외향형 문제행동($r=.436, p=.000$) 및 내향형 문제행동($r=.702, p=.000$)과 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정도를 보면 여학생(15.90±10.25)이 남학생(14.19±10.8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내향형 문제행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14, p=.002$). 학년에 따른 문제행동은 외향형 문제행동만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한 결과 1학년 학생(7.05±5.44)의 경우 2학년(5.76±4.62)이나 3학년 학생(5.81±4.98)에 비해 외향형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F=3.66, p=.026$).

그리고 편모 혹은 편부와 사는 경우(19.44±10.23)가 양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14.78±10.57) 보다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66, p=.008$), 특히 외향형 문제행동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다($t=4.22, p=.000$). 가정 경제형편에 따라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4.92, p=.008$), 외향형 문제행동과($F=4.09, p=.017$) 내향형 문제행동($F=4.89, p=.008$)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한 결과 가정의 경제형편이 '하'인 대상자가 '중'이나 '상'인 대상자보다 이들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학교성적에 따라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11.41, p=.00$), 외향형 문제행동과 내향형 문제행동에서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9.47, p=.000, F=7.37, p=.000$). Scheffe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학교 성적이 '하'인 대상자가 '상'인 대상자보다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Table 1> Mean, S.D., and range of major variables

(N=596)

Variables	Total		Male		Female	
	Mean(SD)	Range	Mean(SD)	Range	Mean(SD)	Range
Problem behaviors	15.06(10.58)	0- 54	14.19(10.87)	0- 53	15.90(10.25)	0- 54
Externalized	6.12(4.97)	0- 27	6.19(4.97)	0- 25	6.04(4.98)	0- 27
Internalized	9.09(7.19)	0- 43	8.12(7.22)	0- 41	9.99(7.06)	0- 42
Body image	128.36(22.31)	52-189	134.21(22.05)	67-189	122.62(21.07)	52-186
Depression	10.43(6.90)	0- 38	8.92(6.61)	0- 30	11.89(6.87)	0- 38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major variables

(N=596)

	Problem behavior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Depression
Body image	-.310(.000)*	-.162(.000)*	-.341(.000)*	
Depression	.674(.000)*	.436(.000)*	.702(.000)*	-.330(.000)*

* p<.001

<Table 3> Problem behavior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96)

Variables	Division	Problem behavior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Sex	male	14.19(10.85)	-1.93	6.19(4.97)	.37	8.12(7.22)	-3.14
	female	15.90(10.25)	(.054)	6.04(4.98)	(.710)	9.99(7.06)	(.002)**
Grade	1st year	16.42(10.59)	2.50	7.05(5.44)	3.66	9.48(6.75)	2.28
	2nd year	14.04(10.25)	(.083)	5.76(4.62)	(.026)*	8.34(7.06)	(.103)
	3rd year	15.46(11.09)		5.81(4.98)		9.75(7.67)	
Status of parents	Living with parents	14.78(10.57)	-2.66	5.89(4.84)	-4.22	8.95(7.16)	-1.36
	Living with single	19.44(10.23)	(.008)**	9.24(5.73)	(.000)**	10.56(6.97)	(.173)
Economic status	upper	13.71(9.96)	4.92	6.10(5.12)	4.09	7.79(6.45)	4.89
	middle	15.08(10.68)	(.008)**	5.89(4.87)	(.017)*	9.34(7.42)	(.008)**
	low	18.91(10.77)		7.87(5.03)		11.13(7.11)	
School record	upper	13.04(10.72)	11.41	5.09(4.67)	9.47	8.25(7.90)	7.37
	middle	14.37(10.25)	(.000)**	5.85(5.01)	(.000)**	8.64(6.89)	(.000)**
	lower	19.24(10.42)		7.84(4.54)		11.38(7.19)	

*p<.05 **p<.01 ***p<.001

<Table 4> Predictors on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N=596)

Variables	Cumulative R2	Standardized β	F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Problem behaviors	Depression	.459	.661	447.57	.000***	.863	1.159
	Sex(Male)	.473	.095	158.52	.004**	.925	1.081
	Body image	.465	-.110	230.37	.001**	.925	1.081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Depression	.187	.443	125.40	.000***	.958	1.043
	Sex(Male)	.200	.145	68.45	.000***	.976	1.024
	Grade	.211	-.121	40.04	.002**	.991	1.009
	School record	.219	.098	38.76	.012*	.953	1.049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Depression	.504	.672	447.57	.000***	.883	1.132
	Body image	.514	-.111	230.37	.001**	.883	1.132

*p<.05, **p<.01, ***p<.001

문제행동의 관련변인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단순변량분석이나 단순상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에 근접한 상관성을 보인 성별 변수와 우울 및 신체상을 포함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인 신체상과 우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r = -.330, p = .000$)를 보여 <Table 2>,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어 검정한 결과 공차(tolerance)가 .858에서 .991로 1에 가깝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81에서 1.16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4>.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변수로 우울, 신체상, 성별 등 3개의 변수가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관련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7.3%였다. 이들 변수 중 우울의 설명력이 45.9%로 가장 높았다. 한편 문제행동 유형별로 다시 분석한 결과 외향형 문제행동에 관련된 유의한 설명변수로는 우울, 성별, 학년, 학교 성적 등이었으며 설명력은 21.9%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형 문제행동에 관련된 유의한 설명변수는 우울과 신체상이었으며 설명력은 51.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제행동 정도는 전체 평균이 15.06점, 남학생은 평균이 14.19점, 여학생은 15.90점으로 여학생의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외향형 문제행동은 남학생은 6.19점, 여학생은 6.04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며, 내향형 문제행동은 남학생은 8.12점, 여학생은 9.99점으로 여학생

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Kim(1990)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에게 집단비행행동 및 외향적 이탈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Laitinen-Krispijn, Ende, Hazebroek-Kampschreur과 Verhulst(1999)의 연구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 비행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유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을 파악하여 그것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법이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남학생 및 여학생의 대처방법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방안의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상은 전체 평균이 128.36점, 남학생은 134.21점, 여학생은 122.62점으로 남학생의 신체상 점수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신체상이 이 시기에 출현하는 성적 변화 및 신체적 변화에 따라 형성되며(Chung, 1990),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Guinn, Semper, Jorgensen과 Skaggs(1997)의 보고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에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성적 변화 및 신체적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특히 또래 청소년들에 비하여 성적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청소년들의 신체상 형성과정에 대해 교사와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건강교육 담당자는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winsohn, Clarke, Hops와 Andrew(1994)의 연구에서 우울한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 것과, Kandel과 Davies의 연구(1986)에서 청소년 우울이 비행행위 및 약물사용 행위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내향형 문제행동 점수에서는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외향형 문제행동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의 차이에 대해 Kim(1990)의 연구에서 남학생에게 사회화된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Brage(1995)도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의 차이에 대해 여성은 문제를 내재화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남성은 문제를 외향화하여 행동화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겠다. 또한 편모나 편부와 사는

대상자에게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외향형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inshaw(1992)의 연구에서도 가정 내에 있는 역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했거나 이혼 및 별거 등의 이유로 편모나 편부와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절한 중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 성적이 낮은 대상자가 문제행동 점수와 외향형 문제행동 및 내향형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좌절감을 경험함에 따라 자아개념이 낮아지고 학교와의 밀착이 결핍되면서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Hinshaw(1992) 지적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 내면에 있는 좌절감이나 손상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우울, 신체상, 성별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울의 설명력이 45.9%로 가장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비행 청소년에게 우울 및 불안정도가 높았다는 보고(Lee, Chin & Cho, 1998)와 우울한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이 많았다는 보고(Kandel & Davies, 1986; Lewinsohn 등, 1994)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Carlson(1980)은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행동을 저지른다고 하였으며, Ha(1982)는 비행청소년들은 자아발달의 지연 및 자기조절의 장애 등의 문제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즉시 외향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이나 문제행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신체상이 문제행동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Thompson과 Chad(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가 부정적인 경우 문제행동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Hinshaw(1992)는 낮은 경제적인 수준이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수준이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 외향형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는 우울(설명력 18.7%), 성별, 학년, 성적으로 나타났으며, 내향형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는 우울(설명력 50.4%), 신체상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설명하는 관련변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Brage(1995)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문제를 외향화하여 행동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와, 낮은 학업 성취도가 외향형의 문제행동의 관

련변인이라는 Hinshaw(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학년이 외향형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관련변인으로 나온 결과는 남학생의 우울이 외향형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볼 때 Nottelmann 등(1987)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문제행동의 유의한 설명변수였던 신체상이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는 내향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나 내향형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또한 외향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우울한 정서를 포함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관련변인을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학교를 포함한 실제현장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해 접근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대상자는 59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행동 연구도구는 Hong(1986)의 아동행동목록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문제행동에 관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체상은 Chung(1984)이 재개발한 신체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ck(1978)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와 Song(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신체상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한 역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간에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 여학생에게 내향형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편모나 편부와 같이 사는 경우 문제행동과 외향형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와 학교 성적이 하인 경우 문제행동, 외향형 및 내향형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으로는 우울과 신체상, 성별로 나타났으며, 외향형 문제행동은 우울, 성별, 학년, 성적이었으며, 내향형 문제행동은 우울과 신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들

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우울한 정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 내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처전략 훈련이나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신체상이 부정적인 청소년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C. I. (1987). *Understanding and guidance of juvenile delinquency*. Seoul: Songwon
- Ahn, H. Y., & Yi, G. (2002). A correlational study of adolescents behavior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with child abuse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J Korean Comm Nurs*, 13(4), 786-794.
- Beck (1978).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 Brage, D. G. (1995). Adolescent depressio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 Psychiatr Nurs*, 9(1), 45-55.
- Buchanan, C. M., Eccles, J. S., & Becker, J. B. (1992). Are adolescents the victims of raging hormones?: Evidence for activation effects of hormones on moods and behavior at adolescence. *Psychol Bull*, 111, 62-107.
- Carlson, G. A.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37, 445-449.
- Cho, S. C., & Nam, M. (1994).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anxiety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i*, 33(6), 1273-1282.
- Chung, Y. N. (1990). *A study of relationship of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Guinn, B., Semper, T., Jorgensen, L., & Skaggs, S. (1997). Body image perception in female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 Sch Health*, 67(3), 112-115.
- Ha, H. K. (1982). A study on delinquent adolescents by sociopsychiatric approach.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1(2), 237-254.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 Bull*, 111(1), 127-155.
- Hong, K. J. (1986). *A study of development of behavior typolo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Hyun, M. S. (2000).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development and problem behavior and depressio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9(4), 455-468.

- Hyun, M. S., Nam, K. A., & Kong, S. S. (2001).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deelopment and problem behavior and depression :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Kyungki-Do. *J Korean Acad Psychiatry Ment Health Nurs*, 10(4), 533-547.
- Kandel, D. B., & Davies, M. (1986). Adult sequela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 Gen Psychiatry*, 43, 255-262.
- Kim, K. S. (1990). *A study of relationship of Alienation and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 Kim, J. K., Kim, E. S., & Lee, J. A. (1997). A study about the experienced problems and the demands of counseling of the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the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J Korean Comm Nurs*. 11(2), 152-170.
- Laitinen-Krispijn, S., Ende, V., Hazebroek-Kampschreur, A., & Verhulst, F. C. (1999). Pubertal matu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9(1), 16-25.
- Lee, J. K., Chin, T. W., & Cho, J. Y. (1998). A study on the anxiety, depression, repression, and coping strategy of delinquent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7(3), 493-499.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BDI, SDS, MMPI-D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0(1), 98-113.
- Lewinsohn, P., Clarke, G., Hops, H., & Andrew, J. (1990).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for depressed adolescents. *Behavior Therapy*, 21, 385-401.
- Norris, C. M. (1970).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Philadelphia : Lippincott Company.
- Nottelmann, E. D., Susman, E. J., Inoff-Germain, G., Cutler, G. B., Loriaux, D. L., & Chrousos, G. P. (1987). Developmental processe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adjustment problems and chronologic age, pubertal stage, and puberty-related serum hormone levels. *J Pediatr*, 110, 473-480.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cathexis and self. *J Consult Psychol*, 17(5), 343-347.
- Shapiro, R., Siegel, A. W., Scovill, L., & Hays, J. (1998). Risk-taking patterns of female adolescents: What they do and why. *J of Adolescence*, 21, 143-159.
- Shin, Y. J. (1995). *A study of relationship of self-consciousn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ve tendency among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Teri, L. (1982). The use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ith Adolescents. *J Abnorm Child Psychol*, 10(2), 277-284.
- Thompson, A., & Chad, K. (2000). The relationship of pubertal status to body image, social physique anxiety, preoccupation with weight and nutritional status in young female.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3), 207-211.
- Udry, J. R., & Talbert, L. M. (1988). Sex hormone effects on personality at puberty. *J Pers Soc Psychol*, 54, 291-295.
- Worchel, F., Nolan, B., & Willson, V. (1987). New perspectives o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J Sch Psychol*, 25, 411-414.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Behaviors among Adolescents :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Hyun, Myung-Sun¹⁾ · Kim, Kyung-Hee²⁾ · Kim, Sun-Ah³⁾

1) Division of Nursing Science,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2) Candidate, School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behaviors among adolescents. **Method:**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96 students in middle school in Seoul. The data was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May to November, 2001 by use of questionnaires.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Child Problem Behavior list by Hong (1986), the Body Cathexis Scale by Secord and Jourard(1953),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y Beck(1978).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program. **Result:** Problem behavior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body image ($r = -.310$, $p = .000$)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 = .674$, $p = .00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lem behavior scores of subjects according to sex, family status, economic status, and school scores. Femal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high degree of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In addition, depression, body image, and sex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problem behaviors(47.3%). Depression, sex, grade, and school scor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21.9%) and depression and body image,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51.4%). **Conclusion:** Since predicting factors of problem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by problem behavior type and sex were different, then practitioners should consider these differences when developing programs for them.

Key words :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Body image, Depress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un, Myung-Sun*
Division of Nursing Science,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an 5, Wonchon-dong, Paldal-gu, Suwon 442-721, Korea
Tel: +82-31-219-5156 Fax: +82-31-219-5094 E-mail: mhyun@ajou.ac.kr